

旅行後記 (英國편)

장 정 옥

1963年 4月 3日은 이른 봄 바람이 스산하게 겨울을 想起시켰고, 社會의 各樣 各色的의 모순을 切感하여 천 갈래 만 갈래로 금이간 心境으로 歐羅巴를 向하여 서울을 出發하던 날이었습니다.

權力도 金力도 또 地位도 없는 한여성의 이날의 出發은 再起의 勇氣를 百倍하고 向學과 見識에의 意慾과함께 自身의 實力을 테스트 해 보는데에 極 多幸한 일이었습니다.

전송 나오신 여러 어른들과 親知들의 손길에서 더욱 따뜻한 情과 激勵을 느끼며, 苦難과 試練이 사람의 마음에 보다 깊고 넓은 成長된 礎石을 堅固히 해준다면 어떠한 試練도 달게받고, 視野를 넓혀 萬人 앞에 祭物이 될수있는 自身이되어 도라오리라 하고 다짐하였던 이날의 決心 永久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비행기가 구름과 구름사이를 뚫고 漠漠한 空間을 續行하는 동안에 어지러운 想念은 機音속에 흘러버리고 London까지의 30餘時間, 柳達永先生님께서 주신 世界旅行隨想錄(유토피아의 原始林 柳達永著)를 全部 읽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感銘은 저의 旅行의 目的과 意義를 더욱 堅實한 方向으로 이끌어 주었고. 첫 페이지에 옮겨쓰신 H선생님의 詩(산에 오르면 달을 보잡일세 들에 나감은 바람을 썩잡일세 태

평양 건늬는 무엇하잠인가, 그대 수평선 넘을제 나 바위처럼 서서 보려네 그대 도라올때도 나 바위처럼 서서 보려네 갈제 그대 얼굴 울제도 그대 얼굴일가)를 머리 속에 몇번이고 되새기며 바위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줄 祖國에의 고마움이 心中을 파고들었던 것이었습니다.

London에 到着하여 直時 韓國大使館을 防問하고 大使館앞에 나부끼는 太極旗를 대하였을때의 몽글하게 끌어오르는 뜨거웠던 感慨, 반가움에 젖어드는 눈시울 1945年 8月 15日 以來 두번째 느낀 貴한 感懷였습니다. 또 李亨根 駐英韓國大使님의 따뜻한 영접을 받으며 異域萬里의 同族愛가 얼마나 所重한지를 알았습니다. 힘을 몰아 기여히 부강한 나라를 이룩해야 겠다고 無言中의 오가는 대사관 職員들의 대사(對詞)를 自身속에 이어받을 수 있었던 心情도 外國을 旅行하신분이면 잘 아실것입니다. 다음날 3月8일부터 British Council에 依하여 바쁘게 짜여진 Programme에 따라 英國內의 農業學校, 師範學校, 家政科를 가진 大學등 12個校를 見學, 或은 一週日式 寄宿舍나 校長舍宅에 留宿하며 實際 學校生活을 같이 했습니다. 學校의 施設이나 民主的인 教育方針은 여기 論할 必要도 없이 理想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師弟間의 親密感 이라든가 先生과 學生間이

서로의 人格과 意見을 尊重 하는 것이라든가 學生을 爲하여 徹底하게 學問의 길을 열어주는 진지한 教育態度등 이 적은 紙面에 具體的으로 옮길수없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此外에 英國各地方의 31個의 女性協會와 女性협동組合의 會議에 참석하여 그들 女性團體의 活動分野와 活動狀況을 상세히 보았습니다. 또 15個의 村落을 訪問하여 個人家庭에 차례로 留宿하고 農村家庭의 衣食住 生活 子女教育 生活感情 등을 工夫할 機會를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英國의 地方博覽會와 女性協會의 大的인 年例會議 展示會, 協會演劇會等에 參席 할수 있었던것과 여러 地方 Rotary club에 招待 되었던것 등은 또 다른면의 새로운 感銘을 받을수 있었던 좋은 機會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본 英國의 印象

음침한 하늘밑에 목직한 建物들로 잘 정리된 市街, 都市와 農村과 外觀의으로도 別差異를 發見할 수없는 現狀 簡소한 市民의 복장, 知性人의 禮節이 몸에 배인 거동 이땅과 이하늘과 여기 呼吸하는 모-든 物體가 너무도 잘 어울려 旅行者들도 安定된 分圍氣에 젖어 自己의 일에 專念할 수있는 곳이 바로 英國이라고 보았습니다.

피로 물들었던 댐스江도 옛이야기를 잊기나한 것처럼 아름다운 風景속에 유유히 흐르며, 이제는 市民의 피로를 어루만져 주는 散索處이며 施政者의 構想力에 감탄하지않을수없는 各處에 자리잡고있는 廣大한 公園의 아름다운 잔디와 樹木과 또

湖水, 여기서 英國市民은 빈잡한 都市生活의 피로를 마음껏 풀고, 來日의 새 意慾을 찾는 것입니다.

英國의 모-든 住宅은 50餘cm에 不過한 常綠의 담정안에 알뜰히 庭園을 가꾸고 집집마다 窓가에는 아롱지게 꽃을 장식하여 常時 길가는 行人과 더부러 흐뭇한 美의 餘滴을 나누고있습니다. 歸國하여 東亞日報社 南側층계의 꽃을 發見하고 마치 London의 건물의 한모퉁이에 接한 듯 무척 기뻐합니다만, 그러한 꽃의 아름다움을 흔히 볼수있을만큼 그들은 아름다움을 希求하여 꽃을 정성껏 키우는 것입니다.

또 진정 個人의 人格이나 意見을 존중하고 民主路線의 山 標本이 되기를 願하는 그들은 Hayed Park 한 모퉁이에 Speech Corner 을 마련하여 누구나가 自己의 보관이나 정치의인 意見을 演說할수있게하고 있습니다. 土曜日과 日曜日은 저녁 散索을 利用하여 그들의 演說에 귀를 기울이기도했고, 모여든 行人들과 찬송가를 우렁차게부르고, 說教를 듣던 저녁등 잊혀지지않는 旅想의 하나입니다.

商街의 사이 사이에 유난이 많이 눈에 뜨이는 書店과 恒時 가득한 書店안의 젊은이들의 책을 찾고있는 모습도 대견했거니와, 施設이 完備된 수많은 도서관 無料로 공개되어있는 各分野의 박물관의 웅장함 이밖에 헤아릴 수 없는 여러 公共施設을 오늘의 英國이 차지 하기까지의 그들의 努苦에 매양 敬慕를 表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市民이 公有公樂할 수 있는 福祉國家 英國은 統治하는 사람의 명석한 頭

惱와 獻身的인 努力에도 달렸겠지만, 二次大戰을 前後하여 國民個個人的 큰 覺醒과 遂次 積極的으로 社會生活의 向上을 具體化시킨 英國 國民의 힘이 컸던 것입니다. 社會보장제도와 社會福祉事業等 國民全體를 對象으로한 總合的인 制度를 立案 實施함에 이르러 그 過程에 많은 難點이 있었을것은 누구나가 推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難關을 英國 國民의 理解와 忍耐와 社會奉仕心의 協同으로克服하고 오늘의 勝利를 차지하게 한것이라고 봅니다 特히 英國女性의 虛飾도私心도 버린 奉仕精神의 結實이었다는것을 強調하고싶습니다. 다시말해서 英國의 安定된 社會生活이 오늘의 成長을 찾게된 過程을 상세히 살펴보면 人間의 社會生活向上을 爲하여 國民의 누구인가가 도처에서 自發的으로 水準 以下の 同族을 保護或은 援助하였고, 施政者는 넓은 視野에서 國民의 意志나 活動을 觀察하여 뒷바침함으로써 社會奉仕에 對한 國民의 關心과 協助를 끌었던 것입니다.

英國의 兒童福祉法이 London deck에서 獨身으로 浮浪兒를 收容한 貧困한 醫學徒 Barnard의 精神을 法制化한것이라든가 감옥의 法制化의 숨은 이야기등 政治家를 感動시켜 法の 向上을 圖謀한 英國國民의 自發的 自主的인 社會奉仕心과 國民과 呼吸을 같이하여 能率的으로 國民의 協同의길을 개척해 나아가며 施政해온 많은 實例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英國의 女性活動

오늘날 英國 國民이 教養과 常識의 象徴으로 삼고 있는것은 Voluntary service입니다.

特히 女性의 손에 의하여 날로 開拓되어 가고있는 이 Voluntary service는 社會保障이나 國民扶助가 最低限度的 文化的인 生活을 일단 保障하여 준다 할 지라도 욕망에 限이없는 人間에있어 衣生活이나 個人環境의 구구한 事情等 自立心助長의 影響있는 個人生活의 最低線까지 解決할수없음을 理解하고 國家對策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國民의 不便을 減少시키는 役割을 하여 온 것 입니다.

예를들면, 기동이 不自由한 年長한 老人이 團體生活을 싫어하여 國家가 마련한 養老院에 들지않고 홀로 生活하는데에서 오는 여러가지 周邊의 일이라든가 患者의 病은 國家가 治療해주나 그 後에 뒷 시중이라든가 사고무친의 兒童의 自進保護라든가 社會의 구석구석에서 發見되는 사소한 일을 組織된 婦人團體나 club들이 自己의 使命으로 알고 돕고있습니다. 그러므로 英國社會에서는 아무리 才能이 있고 外交가 能熟하며 地位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社會活動이나 社會奉仕에 協力하지 않는 사람은 教養과 知性이 없는 者로 取扱當하게됩니다. 故로 教養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어떤 社會活動에 加擔하고 公共福祉를 向上시키려는 自己의 信念을 무엇인가 具體的으로 表面化하여 實行에 옮기는 것을 當然한것으로 認識하고있습니다. 即 知識을 가진 사람은 自己知識을 制限된 自己 職場內에서만 充實히 行事하는것이 아니라 自己 知識을 必要로하는 누구에게나 時間을내어 自發的으로 제공하고 財力에 餘裕있는사람, 時間에 餘裕를 만들수있는 사람, 或은 집에서 不必要한 物件등, 自身

의 所有物이나 自身을 最大限度 効果있는 方向으로 利用하여 社會生活의 向上을 爲하여 奉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學校의 敎職員도 會社員도 學生도 또는 60才가 넘는 老人도 모두 어떤 社會奉仕 團體의 會員으로 加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英國 國民의 崇高한 Voluntary service 精神과 國民 個個人의 自主의이며 能率的인 社會活動이 지금도 社會向上의 原動力이 되어 있다는 思考意識의 傳統속에서 法規나 制度로서 國家가 責任지고 있는 社會保障은 그 社會保障이 Social service 의 國家的基準를 가지고 各種各색의 Social service 의 調和와 均衡을 맞추어 나가는 役割을 하고 있다고도 볼수있습니다. 이러한 國民社會 分團氣속에서의 英國女性의 社會活動團體中 代表的인 것으로 Women's Institute 를 들수있겠습니다. 1929年에 발족한 이 女性協會는 16個의 市協會와 61個의 地方協會 또 그 산하에 8,500 個處의 農村協會를 全英國內 방방곡곡에 두고 女性의 地位와 衣食住生活 가정경제등의 向上 社會奉仕等을 爲한 女性成人教育에 注力하여 社會生活의 安定에 協力하고있는것입니다. Oxford에서 20餘哩 떨어진 아담한 시골에 자리잡고있는 Denmon College 는 바로 이 Women's Institute 의 會員들의 教育場이며 一週日式 各處의 會員들을 모아 合宿시키며 社會, 經濟, 文化等の 知識을 傳達하고 家庭經濟를 爲한 家庭生產品의 實習指導 商品포장 販賣方法等の 具體的인 學習 外에도 演說, 演劇等の 分野를 設置하여 그들女性의 社會活動의 水準向上에 專力하고 있는 곳 입니다. 저도 이학

교에서 90名가까운 地方協會員과 Market Course 를 工夫하였습니다. 여기서 訓練받은 會員들은 地方으로 돌아가 各己 自己 地方協會員을 爲하여 배운것을 傳達하며 全體的인 女性의 精神的, 知的 或은 技術面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이 均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理論보다 앞세우는 實踐力을 가지고 各地方에 W.I. Market 를 設置하고 家庭生產品(手藝品 cake 과일 야채 짬뽕 기타 여러가지)을 W.I. Market 를 通하여 販賣하여 家庭의 副收入을 올리고 있는데 W.I. (Women's Institute 의 略稱임)뻬지를 자랑스럽게 가슴에 달고 一週二回를 販賣에 奉仕하는 中年女性들의 모습은 輕快하게 조차 보였습니다. 또 主婦들은 앞을 다투어 이 W.I. Market 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말하면 그들이 運營하는 Market 가 얼마나 크고 훌륭한 商店인가 生覺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訪問한 地方 Market 은 모두 장터모퉁이에 移動式 판자구루마에 지나지않았습니다. 外觀보다 內容의 充實을 存重하는 그들의 精神은 이런데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以上은 英國女性의 社會活動이나 社會奉仕의 一部分이고 數많은 Club 이 같은 精神을 가지고 一致된 方向으로 活動을 持續하여 그들이 設定한 最低基準에서 적어도 그 以下の 生活을 어디에서도 볼수 없게 만들었다는 確信을 누구나가 認定하게끔 하였습니다.

大體로 우리는“社會”라는것을 認識할때 例를 들어서 社會保障 社會福祉 社會主義等を 問題로하거나 批判할때 아직도 社會라는것이 우리보다 上座를 차지하고 있는 우

리들 個個人 以上の 權威를 가지는 嚴然한 支配力을 가지고 있는것 같은 막연한 錯覺 속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을 社會에 要求하거나 우리의 努力으로 이루어질수없는 일에 當面하여 社會가 나쁘다고 社會에 그 責任을 전가하는 習性이 있습니다. 그러나 社會의 實力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힘 以上の 것도 또 以下에 것도 아니라는 것을 冷情한 立場에서 긍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日常生活에서 너무나도 많이 쓰여지는 이 “社會”라는 말은 事實上 “우리들”이라는 平凡한 말로 表現되어 무방하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하지않는 일을 “우리들”의 別名에 지나지않는 社會에 期待할수도 없고 우리들이 意慾과 努力을 기울이지 않는 或은

關心조차 表示하지않는 일을 社會가 自動裝置로 움직이는것 같이 만들어 줄 道理가 없는 것 입니다.

結論지어 우리들 한국 女性도 솔선하여 우리의 集結體인 社會에 對한 認識을 加一層 새로이하고 社會안에서의 人間相互關係의 存在方法을 積極的으로 表示하여 뒤늦게나마 우리들 女性의 힘으로 先峰해 나아갈 수 있는 福祉社會를 이땅위에 이룩해야겠습니다. 이번 英國에 4個月, 덴만에 1個月, 스웨덴 이태리 불란서등地的 旅行을通하여 特히 女性과 社會를 關聯지어 받은 저의 體驗과 感動을 더 많은 우리 한국 女性이 海外로 進出하여 共感할수 있는 機會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한가정학회지



제 4 호 발 간

씨 — 르 레 쓰

淑女用 F. F. T. 스타킹
各種內衣



표

스타킹 · 관제리 · 레 — 스 綜合메 — 카
南 榮 染 織 株 式 會 社
서울特別市永登浦區文來洞5街13
Tel. ⑥ 1 2 1 1 · 1 6 5 8
明 洞 씨 — 비 스 쎌 타
서울特別市中區明洞2街72
Tel. ② 0263 · 0482 · 0725 · 0726